

# 해남군, 화원 해상풍력단지 조성 속도

### 해남군-유니슨(주)-대한조선(주) '화원조선단지 활성화' 협약

해남군이 화원조선산업단지를 해상풍력사업 배후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4일 균형 상황실에서 유니슨(주), 대한조선(주)과 화원조선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유니슨(주) 허화도 대표이사, 대한조선(주) 정대성 대표이사가 참석해 화원산단을 정부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배후단지로 조성해 나가는 데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유니슨(주)은 화원산단 내 해상풍력 구조물 건조시설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한조선(주)은 미비한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군에서는 화원산단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유니슨은 1984년 설립된 국내 1세대 풍력발전기 전문기업으로 국내 최초(영덕풍력) 및 최대(강원풍력)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 대표 풍력기업이다.

신안 해상풍력단지는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민간주도, 정부지원'의 선도적 모델로 8.2GW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총 48조원이 투자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 450개 기업을 육성하고, 12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 등 관계자들이 지난 4일 화원조선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화원조선산업단지에 관련 산업을 유치, 조선소 내 기반시설과 미개발 부지를 해상풍력 구조물 건조 시설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조선은 대불산단에 위치한 공장을 화원조선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이며, 직원 1500여명의 인구 유입과 산단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화원 구림리에서 매월리 간 2.9km 진입도로 개설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화원조선산업단지는 총면적 205만5622㎡ 분양면적 198만3470㎡에 달한다. 2024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산업단지에 조선업뿐만 아니라 금속가

공 제조업 등 업종을 추가해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생산의 여건을 마련했다.

해남군은 화원산단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물류기지 확보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과 전남 블루이코노미 비전에 대처하는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화원조선산업단지는 전남 해상풍력 물류의 최적지로 전남도와 협력해 해상풍력발전 제조업체를 적극 유치해 신안 해상풍력발전 배후단지로 만들겠다"며 "업무협약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겨울 해풍 이겨내 단맛 일품' 진도 봄동 인기

### 비타민C·칼슘 풍부 제철 맞아 수확 한창



한겨울 해풍을 맞고 자라 단맛이 일품인 진도 봄동 배추(일명 떡배추) 수확이 한창이다.

보배섬 진도군의 대표 농산물인 봄동 배추는 줄기와 잎 부분이 부드럽고 맛이 좋아 된장국이나 나물무침, 절절이 등으로 요리하면 구수하고 향이 진하다.

또 늦가을 씨를 뿌려 추운 겨울을 이겨내 칼슘과 칼슘, 인이 풍부하고 빈혈·동맥경화에도 효과가 있어 도시권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특히 봄동은 속이 짝 차지 않고 잎이 옆으로 퍼진 배추로 김장용 배추보다 잎이 작고 껍질이 얇은 것이 특징으로 한겨울에 눈을 맞고 자라 단맛이 강하고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우수하다.

진도군은 전국 봄동 주산지로 전체 200여 농가가 100여ha에서 연간 3000t을 생산, 30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봄동은 남자 어린이 두 손을 펼쳐 엮었을 때의 크기가 최고 상품으로 잎이 뽀뽀하지 않고 부드러워야 곱절이로 사용할 때 씹는 맛이 아삭 아삭하다.

진도군 관계자는 "해풍을 맞고 겨울에 나고 자라 잎이 옆으로 활짝 퍼지는 진도 봄동은 태생부터 남다른 맛"이라며 "진도 봄동은 일반 배추보다 씹는 맛이 고소하고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해 면역성 확보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 신안 섬마을 기간제근로자 공고 내도 '미달'

### '인력사전등록제' 도입 시행

"섬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 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1004개의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 관계자의 한숨 섞인 푸념이다.

실제로 신안군이 2019년부터 진행한 섬마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가운데 모집인원이 미달인 경우는 5건이다.

모집인원과 똑같은 수가 응모해 재공고한 사례도 8건이나 됐다.

2년이라는 기간에 무려 13건이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제때, 제대로 충원하지 못한 것이다.

군이 채용하려 했던 인력은 방문 건강관리나 치매안심센터, 아동 통합사례관리 등 섬마을 주민들의 건강·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서류심사에 합격하고도 면접에 불참하는 사례도 있고, 심지어 합격하고도 '섬은 험지'라며 근무를 기피하다가 그만두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탄식했다.

이에 군은 고질적인 기간제근로자 채용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인력사전등록제'를 마련해 7일 시행한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특성상 수요가 발생하면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모집하기 때문에 공고 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신안에서 기간제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도 공고를 놓쳐 지원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안에서 기간제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안군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력서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일종의 신안군 인재 풀(pool)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전 등록된 이력 사항에는 본인의 특성 분야와 희망하는 분야를 등록할 수 있고 채용이 진행되면 해당부서에서 등록자에게 공고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무안의 최고 매력 찾아라"...관광 사진 공모전

### 11월에 작품 접수

무안군이 숨겨진 지역의 관광지를 발굴하고 관광 마케팅과 군정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2022 무안관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무안을 홍보할 수 있는 생태·자연경관, 역사·문화·기반시설 등 참신하고 매력적인 관광사진이며, 연령과 지역의 제한 없이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작품 접수기간은 11월 1~11일이다. 응모자는 11×14인치 인화사진(1인 5점 이내)과 신청서, 서약

서, 출품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금상(1점) 150만원, 은상(2점) 70만원, 동상(5점) 50만원, 가작(23점) 20만원 등 31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중 군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영희 무안군 관광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은 무안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할 계획"이라며 "훌륭한 사진작가 분들이 공모전에 적극 참여해 무안의 숨겨진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이제는 '스탬프투어'도 모바일로 하세요

### 영광군, 스탬프 8개 획득 추천 통해 특산물 선물

영광군이 지역 유명 관광지 방문객에게 스탬프 인증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모바일 스탬프투어' 이벤트를 본격 개시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편의성을 높인 애플리케이션이다. 종이 재질의 여행록에 주요 관광지 정보가 담긴 스탬프를 찍던 것을 스마트폰으로 옮겼다.

휴대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를 검색해 앱을 설치 후 주요 관광지로 지정된 곳을 여행하며 모바일 스탬프를 받으면 된다.

영광지역 스탬프 투어 관광지는 총 20곳으로 스탬프를 8개 이상 획득하면 추천을 통해 영광군 특산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영광지역 스탬프 투어 주요 관광지는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절경과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백수해안도로와 칠산타워, 인도승마라나타가 백제불교를 최초로 전래한 불교최초도래지 등 4대 종교 성지가 있다.



영광 백수해안도로 노을전망대에 칠산도 상징인 꿩이갈매기 날개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됐다. <영광군 제공>

특히 지난해 백수해안도로 노을전망대 위에 조성한 꿩이갈매기 날개 조형물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포토존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스탬프투어 앱을 활용하면

재미있고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다"며 "겨울바다의 낭만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영광에서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이중윤 기자 jylee@kwangju.co.kr

##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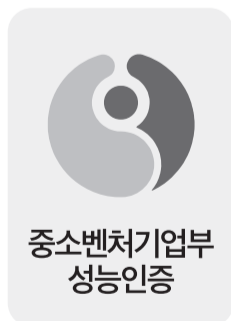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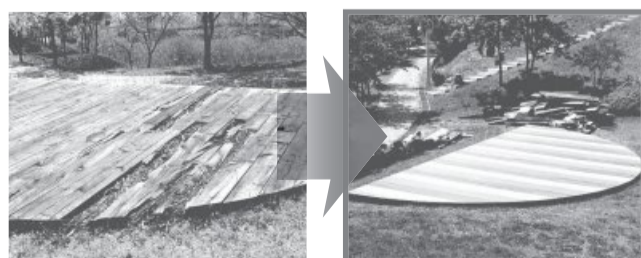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